



인쇄연합회, 전국 인쇄업계 피해사례 조사 보훈단체 · 관공서 · 지역신문사 편법 인쇄업 운영 실태 조사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가 보훈단체 · 관공서 · 지역신문사 등의 편법적인 인쇄업 운영에 따른 전국 인쇄업계의 대대적인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인쇄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 전국 조합원 업체 대표에게 인쇄업계 피해사례 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인쇄업계의 대대적인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백서 발간·정치권 전달로 문제 시정에 최선

공문에서 연합회는 “현재 우리 인쇄업계는 장기적인 내수 불황에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인쇄물 수요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각종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문제, 지방 지역신문사의 인쇄물 수수행위, 대기업의 인쇄영역 침범 행위, 관공서의 발간실 문제 등 우리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실례로 최근에 언론지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단체(용사촌)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10여 년간 약 845억 원의 인쇄물을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인쇄업계의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연합회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쇄업계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 백서를 발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 국회 국정감사 및 해당 상임위원회, 국가기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동 백서를 제출해 조합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림페이퍼 인쇄업진출 저지·현대로지스틱스 계약 연장

인쇄연합회는 최근에는 대기업의 인쇄업 진출과 부당 계약 해지 등의 횡포를 막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쇄연합회는 인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림제지가 삼성홀플러스와 인쇄물을 직접 계약해 인쇄업에 진출하려는 사례와 현대로지스틱스(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처를 바꾸는 등의 대기업 횡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인쇄연합회는 관련 내용을 동반성장위원회 및 관련 업체에 진정을 내고 언론에 호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무림제지는 인쇄업 진출을 포기했고, 현대로지스틱스(주)도 계약기간을 원상 복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쇄연합회는 앞으로도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